진지향(津之香)



▲ 진지향

1. 육성경위

일본의 농림성 과수시험장 감귤부에서 1972년 청견(淸見)에 흥진조생(興津早生)을 교배하여 육성시킨 교잡종이다. 1983년에 1차선발하여 1984년부터 구지진12호(口之津12號)의 계통명을 붙여 제5회 계통적응성·특성검정시험에 공시되어져 1990년「津之香」이라고 명명, 탄골 농림 3호로써 농림등록되었다. 제주도에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져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다.

2. 주요특성

나무 수세는 중간정도로 청견보다 약간 약하며 벌어지면서(개장성) 자란다. 나무의 성질은 청견과 닮고 잎 테두리에도 약간 물결 모양이 있어 청견과 유사하다. 가시는 발생하지 않고 병해에 대한 저항성은 더뎅이병(창가병)에 강하고 궤양병에는 약간 강한 면을 나타낸다.

과실 과실크기는 160~200g 정도로 청견보다 적고 과실모양은 편평하여 온주밀감에 가깝다. 과형지수는 약 130정

도이며 과피색은 주황색으로 청견보다 진하다.

과실표면은 매끈하여 곱고 청견보다 과피도 얇아 껍질벗기기(박피성)도 용이하며 12월에 완전착색한다. 오렌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늦게까지 나무에 두더라도 부피 발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속껍질(양낭피)은 얇고 육질은 유연다즙하지만 알알이(사낭)는 청견보다 약간 단단하다. 당도는 청견보다 높지만 산의 감소는 청견과 같거나 약간 늦은 편으로 숙기는 3월 하순~4월 상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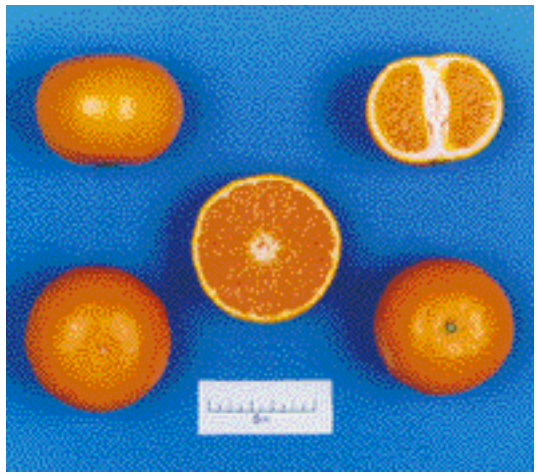
꽃가루(화분)는 불임성(不稔性)이며 과실은 단위결과성이 있어 씨가 없다. 다른 품종의 수분(受粉)에 의해 종자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는 극히 적다.

3. 재배상의 유의점

온난한 감귤재배지대가 적지로 겨울철 과실이 한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나무는 개장성으로 정지·전정이 용이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견에 비해 약간 수세가 약하다.

대목은 탱자 중에서도 수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계통을 선발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된다. 풍산성이지만 착과과다가 되면 해거리현상을 초래한다. 풍년인 해에는 열매솎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결실량에 의하지만 과실의 크기는 200g 이상으로 되면 당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180g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탱자대목에서 육묘한 나무는 조기에 결실을 시작하여 과다 결실이 되기 쉽고 과실의 중량에 의해 가지가 늘어지고 벌어져 엉망인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지주를 세워서 주지를 바로 잡아주고 적과(열매솎기)를 철저히 하여 우선 수관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진지향의 과실

과실의 내한성은 다른 감귤류와 같은 정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완숙과 생산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확시기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지만 늦게까지 나무 위에 두면 가벼운 바람들이 현상이나 과경부 쪽의 과피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진지향은 재배하기가 비교적 쉽고 결실이 좋아 해마다 300평당 4~5톤정도의 많은 수량을 올릴 수 있으므로 상품율이 높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4월 이후에 출하하면 높은 판매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품종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노지재배를 할 경우, 한해 또는 조류피해등이 우려되고 진지향의 제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므로 비가림 또는 보조가온 등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해야만 품질 높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